

상등급 출현율을 높이기 위한 사양 및 출하관리

이태영 대리
도드람양돈농협 농가지원실

2002년의 구제역 발생과 돼지콜레라 발생은 우리 양돈산업에 저돈가 시대라는 어두운 현실로 다가왔으며, 다시금 생산자로 하여금 생산비 절감 및 판매단가 향상 등의 경쟁력 강화에 의한 생존의 길을 걷게하는 현실을 가져왔다.

농장의 경쟁력 강화를 생산비 절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고품질 돈육생산을 위한 시스템구축을 통한 판매단가의 향상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돈품질의 판단기준은 정부가 정한 육질과 육량에 의해 분리된 등급판정 기준에 의한 것이며, 이 기준에 의해 생돈의 판매단가가 정해지고 이것은 바로 농가의 수익과 직결되므로 농가의 입장에서는 등급판정시 판매단가가 유리한 상등급을 많이 받는 쪽으로 사양관리가 맞춰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등급판정에 따른 판매단가

일반적으로 등급간 판매가격의 차이는 서울 농협 축산물공판장에서 형성되는 등급간 지육 1kg당 평균가격이 약 190원 정도의 차이

〈표 1〉 성별(암돼지, 거세)등급간 단가차이(단위 : 원)

등급간	암돼지	거세돈
A-B	271	143
B-C	184	142
C-D	195	213
평균	216	166

* 서울축산물공판장 2003년 1월 등급별 평균단가적용

를 나타내며(표 1), 이러한 차이는 모돈 100두 농장에서 연간 평균체 110kg의 생돈을 2,000두 출하할 경우 등급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서 연간 2천8백8십만원의 소득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2. 상등급 출현율 향상을 통한 소득 증대 방안

가. 상등급 출현율 향상 방안

위에서 언급했듯이 생돈 단가차이는 등급간 차이와 성별간 차이가 발생하고, 이 단가차이는 농가의 수익과 직결되므로, 농가에서는 가능한 상등급 출현율을 높일 수 있는 사양관

〈표 2〉 A, B등급 육량기준(박피, 탕박)

	박피도체		탕박도체	
	중량(kg)	등지방(mm)	중량(kg)	등지방(mm)
A등급	69~82	10~20	76~90	15~25
B등급	63~68	8~23	70~75	13~28
	69~82	8~9	76~90	13~14
	69~82	21~23	76~90	26~28
	83~85	8~23	91~93	13~28

* 서울축산물공판장 2003년 1월 등급별 평균단가 적용

리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다.

상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표 2〉에 나타났듯이 일단은 육량의 도체등급판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2차 등급판정의 기준이 되는 외관(균형, 비육상태, 지방부착, 마무리)과 육질(조직감, 육색, 지방색, 지방침착)의 항목 또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생산자 입장에서 도축후 지육상태로 판단이 가능한 2차 등급판정 기준까지는 알 수가 없으므로, 〈표 2〉에 나타난 육량의 등급판정기준에 사양관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규격돈 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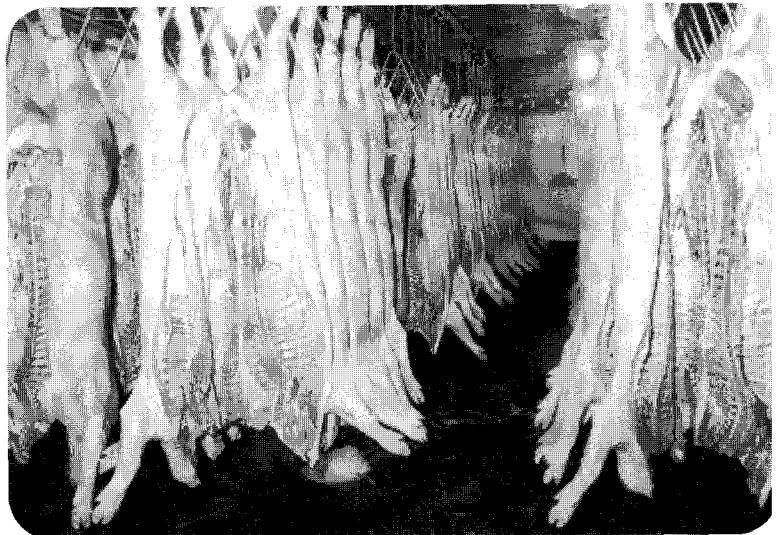
박피도체 및 탕박도체의 A등급에 해당하는 지육중량을 생체중량으로 환산할 경우, 약 100kg~118kg을 나타내므로 농가에서 출하시 생체중량을 확인한 후 출하함으로써 상등급 출현율을 높일 수 있고 이러한 규격돈 출하를 위해서는 위축돈 및 체중 초과돈은 조기출하를 하고, 출하규격 준수를 위하여 출하 전일 출하돈에 대해 개체별 표시를 함으로써 상등급 출현율을 향상을 위한 규격돈 출하비율을 높일 수 있다.

2) 종돈갱신 및 종돈통일

일반적으로 생산성의 향상 및 고품질의 돈육생산을 위하여 종돈전문업체에서 지속적인 육종개량을 한 후보돈 및 옹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종돈갱신 없이 3원교잡종 중 모돈을 선발하거나 종돈갱신이 없는 농장의 경우는 생산성적의 저하와 비육돈의 과도한 지방축적으로 인해 등급의 저하 및 농장 수익의 저하를 가져와 농장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농장 규모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종돈갱신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수태지의 거세

비거세돈은 일반 비육돈일 경우 등급판정시 C등급 및 D등급의 낮은 등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세돈과 비교하여 같은 C등급과 D등급일지라도, 평균단가에 있어서 박피 지육 kg 당 단가차이가(서울농협축산물공판장기준) 약



360원을 나타내고, 이 단가 차이는 일반 정상 비육돈의 등급간 단가 차이보다도 월등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등급 출현율 향상 및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수태지에 대해 반드시 거세를 해야 한다.

및 비육돈의 각 단계별 전출시 체중별, 성별 분리는 체중편차를 줄이고, 균일된 규격돈을 출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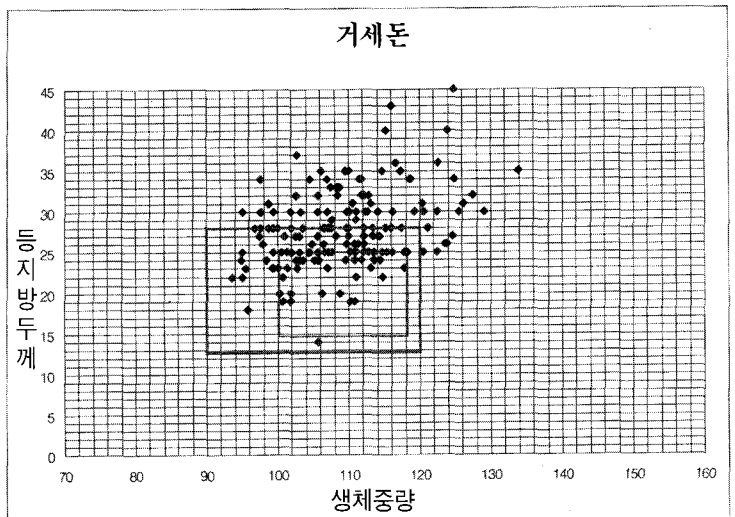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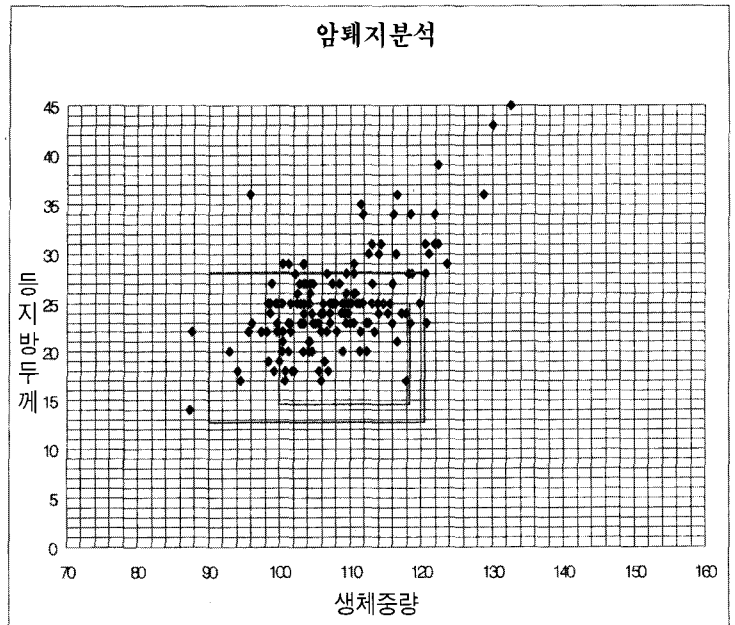
4) 올바른 사료 급여 프로그램 준수 및 비육후기 사료 급여

6) 암퇘지와 거세돈의 출하체중 조절

일반적으로 같은 체중대의 생돈이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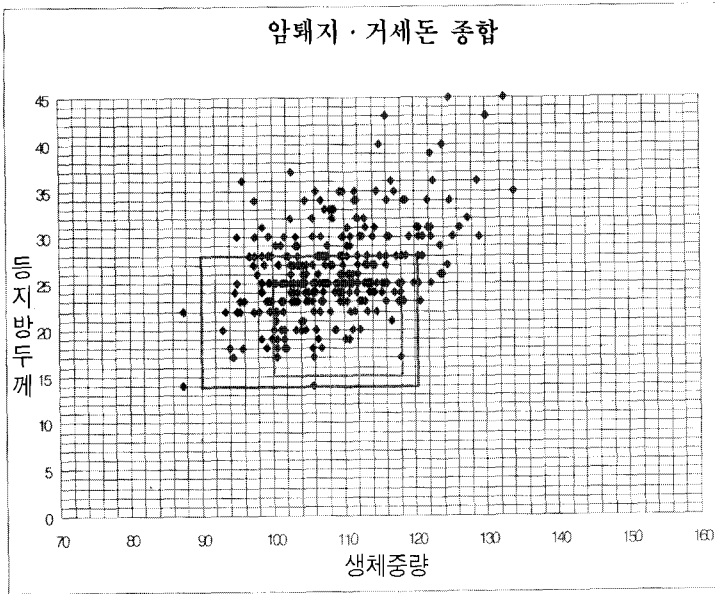
돼지의 성장곡선은 사료급여량과 일령에 따라 체중이 정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므로 성장곡선에 맞지 않는 지속적인 고에너지 사료의 급이는 성장 말기로 갈수록 등지방두께의 축적을 가져와서 과도한 등지방두께로 인한 등급저하 뿐만 아니라, 사료효율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자 많은 사료회사들이 각 회사의 에너지 수준에 맞는 사료급여프로그램의 준수를 요구하며, 또한 과도한 등지방두께 축적을 방지하고 육질의 개선을 위하여 각 사료의 특성에 맞는 일정기간 이상 비육후기사료 급여를 요구하는 등의 상등급 출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므로 올바른 사료급여프로그램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림 1〉 상등급 출현율을 위한 내 농장의 실태 분석



5) 성별분리 및 체중별 분리 사육

암퇘지와 거세돈의 분리사육



도표설명 : 예제에 나타난 농장은 모든 200두 규모의 농장으로써 출하 평균체중은 108kg으로 양호하였으나, 상등급 출현율이 71% 정도로 낮게 나타났고, 출하돈에 대한 성별, 개체별 생체중과 등지방두께를 도표에 표시함으로써 상등급 출현율 저하요인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게 나타내었다.

도표의 해석 : 도표상에 나타난 성별 생돈의 특성은 일단 체중편차가 심하고, 거세돈의 경우 대부분이 등지방두께 축적량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105kg이상 부터는 등지방두께의 축적량이 늘어나 상등급 출현율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보인다. 일단 예제의 농장은 선별출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특히나 사육단계별 사료급여 프로그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거세돈에 대해서는 비육후기사료 급여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체적인 출하상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어진다.

농장의 특성 및 사육환경, 사양관리 체계에 따라서 거세돈과 암퇘지별로 등지방두께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여, 상등급 출현율의 저하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의 대부분 농장을 보면 같은 체중대에서 거세돈의 경우 등지방두께 축적량이 더 많게 나타나고, 암퇘지의 경우는 적정하거나 아니면 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는 암퇘지와 거세돈의 출하체중을 분리하여 출하를 하여야 하는데, 많은 사례

를 보면 규격돈으로 인정하는 평균체중 110kg을 기준으로 할 때, 암퇘지의 경우는 110kg~115kg대의 체중으로, 거세돈은 105kg~110kg대의 체중으로 출하를 함으로써 상등급 출현을 높일 수 있다.

나. 상등급 출현율을 위한 내 농장의 실태분석

일반적으로 도체등급판정의 결과를 보면, 대략적인 내 농장의 비육성적(등급판정)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집약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이고 쉽게 내 농장의 비육성적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분산형태의 도표를 이용함으로써 좀더 구체적이고 손쉽게 내 농장 비육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

3. 결론

우리나라의 생돈 정산방법은 등급제와 생체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급율제의 2가지 방법이 업체와 농장간에 적용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등급제는 성별, 등급별 경락가격에 의해 단가가 책정이 되므로, 도축 후까지도 농장에서 생산한 생돈에 대해 농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지급율제는 생체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장에서는 농장에서 생돈이 떠나면 그것으로 농가의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으로

생돈 단가차이는 등급간 차이와 성별간 차이가 발생하고,

이 단가차이는 농가의 수익과 직결되므로, 농가에서는 가능한 상등급 출현율을 높일 수 있는 사양관리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다.

상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표 2>에 나타났듯이 일단은 육량의 도체등급판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2차 등급판정의 기준이 되는 외관(균형, 비육상태, 지방부착, 마무리)과 육질(조직감, 육색, 지방색, 지방침착)의 항목 또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생산자 입장에서 도축후 지육상태로 판단이 가능한 2차 등급판정 기준까지는 알 수가 없으므로, <표 2>에 나타난 육량의 등급판정기준에 사양관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등급판정에서 상등급 출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육질보다는 육량쪽에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었으나, 향후 육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PSE육에 대한 선별을 통해 육량에 의한 도체등급제와 더불어 육질에(PSE육) 대한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농장에서의 상등급 출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더욱더 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식이 되어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생체단위의 지급률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정산방법을 적용하는 업체더라도 도축후 상등급 출현율이 저하되면 출하돈에 대해 패널티가 부과되어 결국엔 농장에 직접적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등급판정에서 상등급 출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육질보다는 육량쪽에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었으나, 향후 육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PSE육에 대한 선별을 통해 육량에 의한 도체등급제와 더불어 육질에(PSE육) 대한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농장에서의 상등급 출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더욱더 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찌됐든, 상등급 출현율 향상을 통한 고품질의 돈육생산은 농장 뿐만 아니라 육가공업체, 소비자까지 모두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농장에서는 이러한 돈육생산을 위해 앞에서 열거한 몇 가지의 원칙들을(이러한 원칙들이 모든 농장의 정석은 아닐 것이다) 준수하여 내 농장에 맞는 원칙을 개발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진정한 자신만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노하우를 쌓고, 또한 업체와 소비자는 이러한 생돈 및 돈육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여 농가의 고품질 돈육생산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양돈**

